

「-아 있다」, 「-고 있다」 조동사 구분에 대하여

김 중 태

<目 次>

- | | |
|------------------------------------|---------------------|
| I. 서론 :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 | 2.2. 「있다」의 의미 |
| II. 본론 | 2.3. 「-아」, 「-고」의 의미 |
| 2.1. 동사의 의미 속성과 「-아」, 「-고」의 분포적 제약 | 2.4. 「-서」의 의미와 기능 |
| | III. 결론 |

I. 서론 :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

1.1 하나의 언어 현상에 대한 공시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평면적인 차원을 넘어서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통시적 언어 변화에서 남은 유물들이 공시적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하나의 장애 요소로 등장할 때, 공시적 차원에서 이들을 모두 포괄하려는 시도는 많은 무리를 유발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시적 차원의 언어 체계에 대하여 통시적 언어 지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입체적인 고찰이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 언어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단순한 기술(description)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타당성에 뒷받침을 둔 설명(explanation)의 단계에까지 이른 감이 있고, 평면적 기술에 만족할 수 없는 경향은 더 많은 통시적 언어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음운론에 있어서는 입체적 언어 현상을 평면적으로 파악하려 했던 변형생성 음운론이 그 무리한 추상성과 이론의 지나친 힘 때문에 비판받기 시작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음운 기술의 평면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

1) Hooper(1976), Lass(1984) 및 최명옥(1985) 참조.

그러나, 형태론과 통사론의 공시적 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단계에 있으며, 다만 공시적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단편적으로 통시적 언어 지식이 원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언어의 통시적 연구라는 것이 공시적인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부분적 언어 현상을 공시적으로 설명하는 일 그 자체는 그 시대의 공시적인 전체 언어 체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설득력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설득력을 뒷받침할 통시적인 언어 지식이라는 것도 언어 변화의 통시적 맥락 속에서 타당성을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4차원적 덩어리 속에서 수행되어 온 언어 지식 모두를 관영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시적 언어 지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이러한 일을 완전 무결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시대 또는 세 시대 정도의 공시적인 횡단면을 놓고, 각 시대의 언어 체계 내에서, 문제가 된 언어 현상이 가진 체계적 가치와 비중을 의미, 형태, 기능면에서 검토하고, 시대에 따른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현대어에 대한 평면적 기술에 앞서서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 이러한 의식이 전제되지 않은 많은 연구들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할 형태소 분석의 기준과 한계가 흔들리고, 필경은 의미 해석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사론 및 형태론적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현대어, 17세기어, 15세기어 등 세 시대의 체계 안에서 「—아 있—」(「—아 있—」)과 「—고 있—」(「—고 있—」)의 결합 어형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 가치와 비중을 검토 비교하는 데에서 출발되었다. 그것은 각 시대의 언어 현상에 대한 평면적 기술을 통하여 통시적 설명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필자에게 주어진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선 현대어에서의 「—아 있—」, 「—고 있—」에 대해서만 기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15세기나 17세기어에서의 「—아 있—」, 「—고 있—」 결합형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필자가 발견한 의문점이나 문제점은 본고에서는 일단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본고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다루려 한다.

1.2 「-아 있-」 결합형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공시적 연구가 이루어 진 바 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이 결합 어형을 이루고 있는 「-아」와 「있다」에 대한 의미 기능의 파악을 위한 것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아」의 의미 파악과 아울러 「-고 있-」 결합 어형에서의 「-고」와의 대립이 논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논의들은 그것이 기울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있다」 앞에서의 「-아」, 「-고」의 분포적 제약에 관한 문제

둘째, 「있다」의 의미 문제, 「-아」, 「-고」의 의미 문제

셋째, 「-아」, 「-고」와 「있다」 사이에 들어가는 「-서」의 기능과 의미에 관한 문제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문제를 중심으로 거론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²⁾

첫째는, 형태소 분석의 한계 및 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졸고(1985)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으나, 「-아 있-」 결합 어형의 의미 파악에서도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임흥빈(1975)에서는 Ramstedt가 주장한 「-아」의 의미에 대한 ‘완료’를 부정하기 위하여 ‘벌었어도’를 예로 들고, ‘어’가 ‘완료’라면 왜 굳이 ‘었’ 다음에 왔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즉, ‘었’이 이미 완료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완료’를 나타내는 ‘어’가 올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반론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시적 언어 현상을 평면적으로 기술할 때에도 반드시 통시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형태소의 형성에 대한 통시적 고려가 있었다면 이러한 반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형태상으로 보면, 「-어도」는 「-어」와 「-도」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형태소임에 틀림없다. 또, 그것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에는 「-어」와 「-도」의 개별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어에서 동사에 결합된 「-어도」의 의미를 음미해 보아도 수긍이 가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어에서 맺음씨꼴 「-어」와 「-어도」에서의 「-어-」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³⁾

2) 15세기 및 17세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더 많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3) 「-어도」형은 이미 15세기에 등장하므로, 이때에 이미 맺음씨꼴 「-어」와 「-어도」의 「-어」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있다.

우선, 동사의 어간 뒤에는 「-어」가 개재되지 않고는 「-도」가 올 수 없다.

「-도」는 명사(명사형)나 부사(부사형) 뒤에는 직접 올 수 있으나, 이 경우의 통사적 기능은 토(조사)이다. 그러나, 동사 뒤에는 반드시 「-어도」형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이 때의 통사적 기능은 씨끝(어미)이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명사나 부사 뒤에 오는 「-도」와 다름이 없다.⁴⁾ 즉, 동사 뒤에 오는 「-어도」의 「-어-」는 「-도」에 종속되어 있으며, 독립된 의미 기능을 가진 「-도」를 동사 뒤에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이 주가 되어 있을 뿐, 독립된 형태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1) a. 오도 가도 못한다.

b. 듣도 보도 못한 일.

위의 예문은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처럼 부정어를 나타내는 부사형 「-지」가 줄어든 어형이므로, 동사의 어간 뒤에 「-도」가 바로 올 수 없는 일반적인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는 되지 못한다.

(2) a. 밥 한 그릇을 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b. 밥 한 그릇을 다 먹어도 더 달라고 한다.

위의 두 예문에서, ‘먹어도’와 ‘먹고도’가 가지는 미세한 의미의 차이로 「-어」와 「-고」의 독립된 의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완료’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먹었어도’가 형성될 시기에 이미 「-어도」는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예문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미의 미세한 차이는 하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조동사 구문의 형성에 따르는 의미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두 개 이상의 어휘나 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용구 또는 언어 단위를 만들어 낼 때, 그 시초에는 개개 형태소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본래의 의미 어휘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변질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3) a. 손 보다 → 수리하다. (고치다.)

4) 명사 뒤에 오는 「-도」와 동사 뒤에 오는 「-어도」의 의미가 같음은 염선모 (1986)에서 잘 지적되어 있다.

- b. 그 사람을 만나 볼까? (만날까?)
c. 이 과자를 먹어 보시오. (먹으시오.)

a)에서의 의미 변화는 물론이고, b) c)에서도 ‘보다’(見)의 어휘적 의미는 이미 없는 것이며, 또, ‘만나’와 ‘먹어’에서 ‘완료’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본다.

- (4) a. 나는 그를 도와 준다.
b. 소경 되어 지이다.

‘아’의 의미를 ‘지속’으로 파악한 김홍곤(1978)에서는 ‘도와’의 ‘아’를 예로 들고, ‘완료’의 의미가 다소 나타나는 b)의 경우는 ‘~지이다’가 ‘고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논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 (5) a. 나는 그를 도와 주었다.
b. 나는 그를 도와 주겠다.

a)에서는 「-아」가 ‘완료’로 될 것이요, b)에서는 「-아」가 아직 ‘미실시’ 또는 ‘미착수’로 둔갑할 것이기 때문에 증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결국 조동사 구문을 형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이미 그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거나 의미의 변질을 겪었으므로(그것이 공식적 이유 때문이든, 통시적 이유 때문이든), 「-아」와 결합된 조동사 구문은 「-아」의 고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언어 자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파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II. 본 론

2.1 동사의 의미 속성과 「-아」, 「-고」의 분포적 제약

「있다」와의 결합에서 「-아」, 「-고」가 가지는 분포적 제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알려진 것을 요약하면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5) ‘만나볼까?’와 ‘만날까?’, ‘먹어보시오’와 ‘먹으시오’의 어휘적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만나볼까’나 ‘먹어보시오’는 ‘걸어가다’처럼 이미 연중에게 한 낱말로 인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양자(만나볼까?, 만날까?) 사이에는 modality의 차이가 개재하고 있다. [-modality]는 조동사 구문이 가지는 의미 속성 중의 하나다.

있다.

첫째, 「—고 있다」 결합은 이른바 진행상을 나타내는 경우와 계기성을 나타내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나타난다.

(6) 그 사람이 벡타이를 매고 있다.

a) 그 사람이 벡타이를 매는 중이다. (진행)

b) 그 사람이 벡타이를 맨 상태에 있다. (계기)

계기의 경우는 벡타이를 ‘매는’ 행위가 끝나고, ‘있는’ 행위가 계속하여 연속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고 보는 것이다.⁶⁾

둘째, 「—어 있다」의 경우는 모두 계기의 구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계기의 「—고 있다」와 역시 계기의 「—어 있다」에서 「—어」와 「—고」를 결정하는 것은 결합동사의 [transitiv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자동사의 경우는 「—어」를, 타동사의 경우는 「—고」를 선택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위와 같은 구분은 예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⁷⁾ 따라서 자동사에 「—고 있다」가 결합되면 이는 반드시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7) 고 있다 < 진행(자동사, 타동사)
계기(타동사)

어 있다—계기(자동사)

그러나 위와 같은 정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

첫째, 다 같은 자동사이면서 ‘죽어 있다’, ‘살아 있다’는 가능한데 ‘*울어 있다’, ‘*놀아 있다’는 왜 불가능한가?

둘째, 진행상의 표현에서 ‘먹고 있다’, ‘피고 있다’는 가능한데, ‘*죽고

6) ‘계기’라는 용어는 김홍수(1977)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빌어 온 것이다.

7) 임홍빈(1975)에서는 ‘병은 서울을 떠나 있다’와 같은 예를 들고 ‘아 있다’가 타동사에도 결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동사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떠나다’를 타동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서울을’을 ‘떠나다’의 목적어로 볼 때만 성립한다. 그러나 목적격 조사 ‘—을’의 형태에만 집착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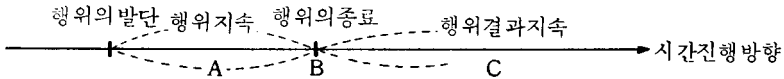
‘나는 어머니가 보고 있다’에서 ‘어머니가’의 ‘가’는 주격형태이므로 ‘어머니가’가 주어가 되어 버린다.

위의 예문은 ‘서울에서 떠나있다’의 의미로 해석하여 ‘서울을’을 ‘떠나다’의 목적어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있다'는 불가능하며 그 대신 '죽어가고 있다'가 자연스러운 까닭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일련의 의문들은 「-아」, 「-고」의 분포적 제약이 결합동사의 의미 속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자.

하나의 행위는 그 발단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있고,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이 있으며, 또 그 행위의 수행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유지하는 기간을 가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수반하여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인종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동작상(aspect)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도표 I〉

A : 행위의 발단~행위 종료 직전까지

B : 행위 종료 순간

C : 행위 종료 이후

그러나 실제로는 동작동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모든 행위들이 위와 같은 ABC의 3단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8) a. 꽃이 피다. 옷을 입다.
 b. 사람이 죽다. 정보를 알다.
 c. 아이가 울다. 편지를 쓰다.

위의 a의 경우는 '꽃이 피고', '옷을 입는' 행위가 시작되어 그러한 행위가 끝나는 순간이 있으며, 그러한 행위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꽃이 핀 상태'나 '옷을 입은 상태'가 어느 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피다'나 '입다'는 ABC의 3단계를 모두 가진 동사의 유형들이다. 그러나 b의 경우는 죽거나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B단계)과 죽고 난 뒤나 정보를 알고 난 뒤의 '죽은 상태'나 '안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을 상정할 수는 있으나 B의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안 죽고' '모르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죽다'나 '알다'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b의 경우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A의 단계를 가지지 못한 동사들이다. 또, c의 예문에 나타난 동사들의 경우는 C 단계를 상정할 수 없다. '울

거나 '쓰기' 시작해서 그러한 행위를 마치는 순간까지는 상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는 이미 쓰거나 우는 것이 아니므로 '올다'나 '쓰다'로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상에서 논의된 동사의 의미 속성과 [transitive]의 자질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동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6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⁸⁾

(9)

의 미 속 성	+ transitive	- transitive
I 형 A. B. C.	입다, 탈다	피다, 눕다
II 형 B. C.	잡다, 알다,	측다, 도달하다
III 형 A. B.	읽다, 쓰다(書)	올다, 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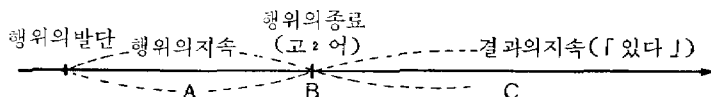
이제 위와 같은 동사의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있다」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아」, 「-고」의 분포적 제약과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잠시 언급한 「-아 있다」와 「-고 있다」의 결합 구조를 좀 더 상론하기로 한다.

즉, 「-아 있다」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행위가 완료되고 그 완료된 행위의 결과가 「-있다」에 의하여 유지되는 정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 있다」의 경우는, 예문(6)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을 나타내는 「-고」와 계기를 나타내는 「-고」로 양분된다. (6) a로 해석되는 경우는 「매는」 행위와 뒤따르는 「있다」 사이에 시간적 전후관계를 상정할 수 없으나 (6) b로 해석될 때는 「매는」 행위가 「있다」 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을 편의상 각각 동시성 구조(6a), 계기성 구조(6b)로 명명하고, 동시성 결합에서의 「-고」를 「-고₁」, 계기성 결합에서의 「-고」를 「-고₂」로 부르기로 한다. 즉 계기성 결합은 행위가 완료되고 그 행위의 완료로 나타나는 결과가 지속되는, 이른바 완료 지속의 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성 결합은 행위의 수행과 「있다」가 시간적 전후관계로 인식되어 질 수 없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어」와 「-고₂」는 선행하는 동사의 [transitive] 자질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변이형태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의 <도표 I>과 「있다」와의 결합관계를 포개어 놓으면 다음과 같이

8) '반짝하다'처럼 순간성만을 가진 동사는 B의 단계만이 있을 뿐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동사는 「-고 있다」, 「-아 있다」 구문은 논함에 있어서는 따로 한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이러한 동사는 「-아」 「-고」의 어느 것과도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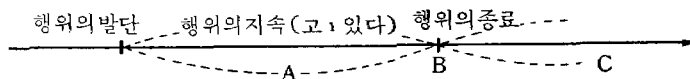
〈도표Ⅱ〉와 〈도표Ⅲ〉을 얻을 수 있다.

계기성 결합



〈도표Ⅱ〉

동시성 결합



〈도표Ⅲ〉

위의 (9)와 〈도표Ⅱ,Ⅲ〉을 살펴보면 「있다」 앞에서의 「-어」, 「-고」의 결합이 제약되는 범위와 그 요인이 비교적 뚜렷해진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기성 결합에서 모든 [+transitive] 동사는 「-고₂」에만, 모든 [-transitive] 동사는 「-어」에만 결합한다.

둘째, (9)에서의 Ⅲ형 동사는 계기성 결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동사는 〈도표Ⅱ〉에서의 C의 과정을 가지지 못하는 동사이므로 C를 표현하는 「있다」와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째, (9)의 모든 Ⅱ형 동사는 동시성 결합이 불가능하다. 즉 Ⅱ형 타동사에 「-고 있다」가 결합되면 반드시 계기성 구조로 해석된다. 또, Ⅱ형 자동사에 「-고 있다」가 결합되면 비문이 된다. 그것은 〈도표Ⅲ〉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 있다」로 표현되는, ‘행위의 지속’을 위한 interval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0)*a. 그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고 있다.

b. 그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네째, I형의 동사는 Ⅱ형이 가지는 동시적 결합의 제약이나, Ⅲ형이 가지는 계기적 결합에의 제약이 없으므로, 계기적 결합의 경우 [transitive] 자질에 의한 「-어」, 「-고₂」의 선택이 있을 뿐이며, 「-고」의 경우에는 (6)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미의 중의성(ambiguity)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의성은 언어 상황의 반영으로 극복되어 지며 따라서, 의사소통에서는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위의 기술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제기성 결합

동사형	+ transitive	- transitive
I 형	고 ₂ 있다	아 있다
II 형		
III 형	불 가 능	

동시성 결합

동사형	+transitive	-transitive
I형	고 ₁ 있다	
II형	불 가 능	
III형	고 ₁ 있다	

<도표 IV>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두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동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행위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화자가 행위를 어떤 모습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상(aspect)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동사에 따라서는 같은 형태이면서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11) a.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살아(生) 있다.

b. 그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살고(居) 있다.

*c. 다 죽어가던 사람이 주사를 맞으니 살고(生) 있다.

d. 다 죽어가던 사람이 주사를 맞으니 살아나고 있다.

*e. 그 사람이 지금도 여기에 살아(居) 있다.

‘살다’(生)는 II형 동사이므로 c는 어색하다. 이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c 대신에 d를 사용한다. 또 e와 같은 말을 들을 때에는 a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것은 살다(居)가 III형 동사이므로 「-아 있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2 「있다」의 의미

위에서, 「있다」 앞에서의 「아」, 「고」의 분포와, 그것을 제약하는 몇 가지의 요인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있다」의 의미가 좀 더 명확히 기술되지 않음으로써 「-고 있다」, 「-아 있다」 구문의 의미 파악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있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문법에서의 다양한 논의⁹⁾를 거쳐, 근래의 有, 在의 이원적 의미파악¹⁰⁾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부분은 의문에 싸여 있다. 본고에서는 「있다」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주로 문장 속의 다른 성분과의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속성에 치중하여 기술하려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광수(1975)에서 有와 在로 이원화되었던 「있다」의 어휘적 의미는 在로 일원화시킬 수 있다. 성광수(1975)에서의 논의는 agent의 속성에 따라서 「있다」의 의미가 有 또는 在로 파악되었으나, 본 연구의 성격상 「있다」에 호응하는 ‘주어(agent가 아닌)의 在’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고 여겨진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보편성(universal)을 추구하는 심층적이론을 배경으로 한 성광수(1975)보다는 국어 화자들의 언어 직관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있다」의 의미를 在로 파악하고, 이것이 가지는 하위기능적인 양면성(상태성과 동작성)을 중점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어 있다」, 「-고 있다」 어형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12) a. 너 돈 있니? 응 있어. 아니, 없어.

b. 너 돈 없니? (*안 있니?). 응 없어(*안 있어). 아니 있어(*안 없어).

c. 돈을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아 있다. (남아 있지 않다.)

*d. 돈을 다 쓰고 한 푼도 남아 없다. (*남아 안 있다.)

e. 아바님께서는 돈이 많이 있으시다. (*계시다.)

f. 여기에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안 있고) 어디로 갔나?

*g. 여기에 있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없고 어디로 갔나?

h. 너 그때 그곳에 있었니 없었니? 있었읍니다. 없었읍니다.

i. 너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니?

가만히 안 있고(있지 않고, *없고) 때를었읍니다.

「있다」(在)의 의미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다’의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그것은 위의 예문 a, b, h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있다」를 부정하는 ‘안 있다’(또는 있지 않다)나 ‘없다’가 나타나는 용례를 보면, 「있다」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차

9) 「있다」의 품사를 동사로 형용사로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존재사로 따로 떼어내는 주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김민수(1960) 참조.

10) 성광수(1975) 참조.

적으로 「있다」의 의미는 ‘안 있다’에 대립하는 부분과 ‘없다’에 대립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안 있다’의 경우는 적어도 다른 어떤 행위의 전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문 f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는’ 행위의, 또 i에서는 ‘대드는’ 행위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행위의 전제가 되는 「있다」에 대한 부정으로는 ‘없다’가 쓰일 수 없다. 따라서, ‘없다’에 대립되는 ‘있다’는 하나의 정태적 상황으로서의 「있다」이며, ‘안 있다’(있지 않다)에 대립되는 ‘있다’는 동태적 행위로서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있다」가 가진 상태성과 동작성의 양면이다. 그것은 품사 분류상 형용사와 동사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3)

			긍	정	부	정
동	작	성	있	다	안 있다(있지 않다)	
상	태	성	있	다	없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순한 기능의 분류는 위의 (12)c와 (12)d를 보면 해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째, 임홍빈(1975)에서 지적된 것처럼, 돈을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았는데 ‘있다’로 표현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의미상 상태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은 ‘없다’가 아닌 ‘있지 않다’ 또는 ‘안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상태성 「있다」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c를 보면, 이 경우의 「있다」는 주어에 대한 단순한 在, 不在의 표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때의 「있다」는 「있다」와 「없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바꾸어 말하면, 「있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표시하는 구체적 실체(여기에서는 돈)의 在, 不在에 대해서는 무표적(unmarked)인 것이다.

따라서, 상태성 「있다」의 의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4)

		marked		unmarked	
긍	정	있	다	있	다
부	정	없	다		

위와 같이 정리하면, 우리는 임홍빈(1975)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 실제로 있어서 이것은 국어 화자들의 언어 직관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15) a. 동생은 학교에 가 있다.
b. 물건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

임홍빈(1975)에서는 물건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있다」로 표현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있다」에 선행하는 전체 절을 명사절로 보았다. 이분은 위의 예문 a)에 대하여 “이제까지 論者들은 ‘동생’의 뒤를 쫓아 다녔다고 보아야 한다. ……제 1 차적인 의미는 ‘동생이 집에 없다’는 정보 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동생’에 초점을 맞추었던 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어」에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는 「—어」를 보문소로 본 남기십 등(1982)에서의 논의와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기갑(1981)에서 지적한 것처럼, ‘삼촌이 외국에 나가 계시다’에서 ‘계시다’의 존재의 대상이 ‘삼촌’일 뿐 ‘삼촌이 외국에 나간’ 사실 전체일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모순의 일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의 언어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다.

- (16) a. 식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b. 동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a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15)a가 쓰였다면, 이것은 정보의 일부분으로서 ‘동생이 학교에 간’ 사실 전체가 대응될 수 있으나, (16)b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동생이 학교에 간’ 사실 전체가 대응될 수 없고, 다만 ‘학교에 간’ 사실만이 대응될 수 있다. 만약, 그 전체를 하나의 정보의 덩어리로 파악하게 되면, (15)a는 ‘동생이 학교에 간 정보(사실)가 존재하다’의 의미로 해석되어, ‘동생’에 초점을 맞춘 (16)b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동생을 쫓아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의 동생의 존재까지도 확인’했던 지금까지의 논자들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논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임홍빈(1975)의 반론에 대한 해답은, 주어의 실제에 대하여 在, 不在를 포괄하는 무표적인 「있다」를 설정함으로써 가능해 진다고 하겠다. 즉, 무표의 「있다」는 ‘~의 상태로 존재하

타'로 해석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는 체계적 구조를 가진 「-어 있다」, 「-고 있다」의 경우, 그 결합동사의 성격이 어떠한든 국어 화자의 언어 직관에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15)a, b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17) a. 동생은 학교에 간 상태로 있다.
b. 물건이 하나도 안 남은 상태로 있다.

여기에서, '상태로 있다'에 호응하는 주어는 어디까지나 '동생'과 '물건'일 뿐이며, '동생은 학교에 가'나 '물건이 하나도 안 남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있다」에 선행하는 '가', '안 남아'가 가지는 통사적 기능은 부사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기갑(1981)에서는 이와 같은 '~의 상태에 있다'에 대응하는 형태소가 '어+있다'라고 하였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의 상태에 있다'에 대응하는 형태소는 「있다」일 뿐이고, 「-어」는 여전히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위의 (15)ab, (17)ab의 의미는 완료 지속이라고 본다. 그것은 '학교에 가는' 행위나 '물건이 안 남게' 만든 작용이 완료된 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나 「-고」가 가지는 완료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표적 상태의 「있다」에 대한 부정이 어째서 '없다'가 되지 않고 '있지 않다'가 되느냐에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있다」는 보조용언(보조 형용사)이며, '있지 않다'가 부정하는 대상은 선행하는 동사의 의미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 그 이유는 자명해진다.

- (18) a. 그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다.
b.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
*c.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안 있다.
*d. 그 사람이 죽어 안 있다.

c, d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입고'(죽어)와 「있다」가 체계적 구성에서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는 등시적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아/고 있다」의 결합형이 화자들에게 한 덩어리의 언어단위로 인식되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체계적 구성에서의 「-아/고」와 「있다」는 그 각각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굳이 조동사 구문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조동사 구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두 형태소의 분리 불가능성 때문이라 하

겠다.¹¹⁾

2.3 「-아」, 「-고」의 의미

위에서, 우리는 「-아/고 있다」나 「-고 있다」의 결합형이 나타내는 의미를 대충 살펴 본 셈이다. 이기 거론했듯이, 체계적 구성의 「-아/고₂」는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태소이다. 이에 대하여, 「-고₁」은 ‘미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태소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9) 동시성 결합: -고₁ 있다(～하는 중이다). 미완료+지속(미완료지속)

계기성 결합: -고₂ 있다
-아 있다(～한 상태에 있다). 완료+지속(완료지속)

위에서 보듯이, 「-아/고 있다」 결합 어형은 그 결합의 견고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의미 기능은 결코 섞이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본항에서는, 「-아」, 「-고」의 의미를 ‘완료’나 ‘미완료’로 파악한 위의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뒤따르는 동사가 「있다」가 아닌 경우를 검토하고, 이 경우 「-아」, 「-고」가 어떻게 그들의 고유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대어에서 「-어」의 의미가 ‘완료’라 하더라도, 「있다」에 결합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동사 구문에서의 「-어」에서 완료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무의미한 작업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어」의 의미 파악에 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조동사 구문에서의 「-어」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있다」가 뒤따르지 않는 「-어」 결합형(현의상 이것을 「V₁어 V₂」라 부르기로 한다.)은 ‘걸어가다’처럼 그 결합이 극히 밀착되어 한 낱말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 보다’, ‘던져 놓았다’처럼 결합의 밀착성이 낮아서, 두 낱말이나 조동사 구문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어서, 「-아」의 완료의 의미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정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현재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극히 활발하던 「아」의 생산성이 오늘날 극히 약화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서, 말하자면, 언어 변화의 통시적 잔해가 공시적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일어나는 혼란이다. 즉, 어형에 따라서는, V₁과 V₂가

11) 「-아 있다」, 「-고 있다」 구문이 조동사 구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극히 밀착된 단계에까지 이른 상태에서, 또는 이제 겨우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가 생산성을 잃게 되었다고 하면, 어형에 따른 밀착도에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그러한 차이는 그대로 굳어져서 화석화된 채로 남게 되는 것이다. 「-어」의 생산성이 약화된 원인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고」의 세력확대와 더불어 「어」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V₁고 V₂」 또는 「V₁어 V₂」 어형에서는 앞서의 논의로서 해명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계기적 해석이 가능한 「-어」 「-고」는 [transitive] 자질만으로는 그 교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V₁고 V₂」 형에서 ‘고’의 의미가 「있다」와의 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료’와 ‘미완료’의 중의성을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조동사 구문은 「V₁어 V₂」 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V₁어 V₂」 형은 완전히 밀착되어 한 낱말로 취급되거나 또는 완전히 떨어져서 그 계기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동사 구문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 즉 [transitive]의 자질 유무에 따른 교체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게 된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V₁고 V₂」의 어형에서의 「-고」의 중의성이다.

(20) 그 사람이 북을 치고 간다. (온다) Ⅲ형

- a. 북을 치면서 간다. (온다)……미완료
- b. 북을 치고 나서 간다. (온다) ……완료(접속 구문)

(21)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간다. Ⅲ형

- *a. 손을 잡으면서 간다……………미완료
- b. 손을 잡은 상태로 간다 ……완료

(22) 아이가 책을 읽고 간다. Ⅲ형

- a.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간다 ……미완료
- b.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간다……완료(접속 구문)

(23)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간다. Ⅰ형

- *a.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으면서 간다……………미완료
- b.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간다 ……완료

(20)과 (22)에서는 a, b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Ⅲ형 동사로서 행위의 시간적 interval을 가지므로 ‘미완료’로서의 해석이 가능하

다. 그리고, Ⅲ형 동사의 「-고」가 완료로 해석될 때는 반드시 접속구문이 된다. 또 ‘잡다’가 Ⅱ형으로 인식되므로, (21)은 a로서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즉, Ⅱ형 동사의 「-고」는 A의 단계가 없으므로 미완료로서의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3)을 보면 I형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interval이 없는 Ⅱ형 동사와 같이 완료로만 파악된다. 즉, 「V₁고 V₂」 어형에서 V₁이 I, Ⅱ형일 때는 「-고」가 완료로만 해석되며(즉 「-고₂」), Ⅲ형일 때는 접속구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완료로만 해석된다(즉 「고₁」). 이렇게 보면, 「고」의 의미가 「고₁(미완료)」로 해석되느냐, 「고₂(완료)」로 해석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화자가 V₁의 동작상(aspect)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논의된 「-어」 「-고₂」는 ‘완료’를, 「-고₁」은 ‘미완료’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뿐이다.

2.4 「-서」의 의미와 기능

「-서」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으나, 그 견해들이 구구하여 일치되어 있지 않다. 본항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서」는 임의적으로 출현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예문을 들 필요도 없이, 「-서」의 기능이 임의적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으므로 타당성이 없다.

둘째, 시간적 전후관계 및 인과관계가 「-서」에서 유도된다는 주장이 있다.¹²⁾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 「-고₂」에 완료의 의미가 있는 한 「-서」가 없이도 시간적 전후관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경우는 첫째 주장과는 정반대로 「-서」의 기능을 과대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세째, 문제의 대상에 대한 존재의 정립을 요구하는 의미분절소라는 주장이 있다.¹⁴⁾ ‘존재의 정립’이란, ‘병에 물이 다 없어져서 있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때, 「-서」가 문제 삼는 것은 ‘물’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병’의 존재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서」가 없는 ‘병에 물이 다

12) 장석진(1973) 참조.

13) 실제로 「V₁어 V₂」의 구조에서 「-어」에 결합된 선행동사 V₁은 V₂에 대하여 원인, 수간, 과정 등의 의미를 가지며,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완료’의 개념이다.

14) 임흥빈(1975) 참조.

없어져 있다'의 경우는 어째서 '병'의 존재가 문제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다. 또, 의미분절의 기능은 조동사 구문을 제외하고 모든 맺음씨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맺음씨끝 뒤에 오는 「—서」에다 의미분절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네째는, 「—서」는 완료나 단절과 대립되는 어떤 의미, 즉 양태유지와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주장이 있다.¹⁵⁾ 이 때의 양태란, '아/어'가 갖는 확실한 의미에 대응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맺음씨끝으로 쓰인 「—아」는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그 의미가 극히 명확하다.¹⁶⁾ 이 주장의 모순은 다음의 설명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즉, 김홍수(1977)에서는 완료나 단절과 대립되는 어떤 의미라는 증거로, '*너무 많이 먹었어서 배탈이 났다.'를 예로 들고, 그 문장의 비문법성이 '었'과 '서'가 상충되는 데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먹었어서'가 비문법적인 것은, '완료'의 안맺음씨끝 '었'에 역시 '완료'의 맺음씨끝 '어'가 중복된 때문이지, 결코 「—서」와 「었」의 의미 상충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의 예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24) a.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다.

*b. 너무 많이 먹었어 배탈이 났다.

「—서」가 없는 b의 경우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 김홍수(1977)에서는, 이송녕(1976)에서 「—서」의 의미를 전제, 지속으로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25) 그는 너무 배가 [*고파는, 고파서는] 빵을 훔쳤다.

그리고 나서, '—는'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는」에 선행하는 주제는 전제된 사실이어야 한다는 주제화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하여, 결국 「서」의 의미를 이송녕(1976)에서의 전제, 지속을 그대로 받아들여 '양태유지'라 지정하였다. 그러나, 주제화에 관한 위의 주장은 다음의 예문을 보면 한계에 부딪힌다.

(26) a. 그는 밥을 먹고는 더 조르지 않았다.

15) 김홍수(1977) 참조.

16) 「—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이유는, 조동사 구문이나 복합동사에서의 「—아」를 복합구문에서의 「—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생기는 혼란 때문이다.

b. 그는 밥을 먹고서는 더 조르지 않았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는」에 선행하는 주제는 「-서」가 없이도 전제된 사실이므로, 먹는 행위의 주제화는 「-서」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26)a에서 드러난다.

위의 논의를 기초로 필자의 견해를 펴려한다.

우선, 제기성 구조나 또는 V_1 과 V_2 가 직접적으로 인접되어 있지 않은 접속문에서는, V_1 과 V_2 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자명해 진다. 따라서, V_1 은 V_2 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상 전제의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화자는 경우에 따라, 하나의 전제된 사실을 정지된 상태의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다. 즉, 「-서」는 V_1 고₂/어에 의하여 완료된 행위를 정태적인 기정 사실로 굳히려는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서」의 기능을 이렇게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첫째, 「-서」는 통시적으로 「있다」의 변이형태인 「시다」의 부사형 「시어→서」에서 단모음화 과정을 거쳐서 「-서」로 형성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태」의 의미를 가진 「있다」가 형태상의 변형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고유 의미속성만은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상태」란 하나의 정지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지」의 기능은 이미 「완료」의 「-어」, 「-고₂」에 의하여 수행되어 있으므로, 제기성 구조나 접속문에서는 「-서」의 의미가 다분히 잉여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접속문임에도 불구하고 V_1 과 V_2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개재하지 않을 경우는 외형상 조동사문의 제기성 구조나 동시성 구조와 의미상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는 V_1 과 V_2 를 차단시켜 그 통시적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서」이다. 다음 예문은 그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7) 전쟁이 끝나고 그는 고향에 돌아 갔다. 그러나 살아서 가지 못하고 죽어서 갔다.

「살아서 가다」, 「죽어서 가다」의 경우, 「-서」가 없으면 「살아 가다」, 「죽어 가다」가 되어 조동사구문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

세째, 「-서」는 정태성이 주어져서는 안되는 진행상에는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은, 위에서 파악한 「-서」의 의미와 역동성을 가진 진행상은 서로 대립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볼 때, 「-서」의 지위는 단순한 첨사에 불과하다. 그것이 가진 통사적 기능은 그 형태소의 의미 속성인 상태성(정태성)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구조가 「-서」의 의미를 잉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위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신한다.

1. 「있다」 앞에 오는 「-아」, 「-고」의 분포적 제약은 결합된 동사의 의미 속성에 따른 6가지 유형과 결합형(계기성, 동시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① 계기성 결합에서 모든 타동사는 「-고」에, 모든 자동사는 「아」에만 결합한다.

② 모든 Ⅱ형 동사는 동시성 결합이 불가능하고, Ⅲ형 동사는 계기성 결합이 불가능하다. Ⅰ형 동사는 그 의미의 속성 때문에 「-고 있다」 결합형에서 중의성(ambiguity)을 가진다.

2. 「있다」의 의미 기능은 상태성과 동작성을 표현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 「-아」에 결합되는 「있다」는 상태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있다」에 호응하는 주어에 의해 표현되는 실체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무표적(unmarked)이다.

3. 「-아」, 「-고₂」의 의미는 ‘완료’이며 「고₁」의 의미는 ‘미완료’이다.

4. 「-서」는 V_1 고₂/어에 의하여 완료된 행위를 정태적인 기정 사실로 굳히려는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그것의 지위는 첨사에 불과하며, 그 통사적 기능은 접속문과 조동사구문을 혼동하지 않으려는 의식의 반영으로서, 「-서」의 의미 속성에서 파생된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재일(1985) :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집문당)

김민수(1960) : 국어문법론 연구(통문관)

김승곤(1977) : 연결어미 {고}에 대하여, 건대학술지 21호.

———(1978) : 상태지속 연결어미 {아}에 대하여, 논리 허용박사 환갑기념논문집(파학사)

- 김종태(1985) : 15세기 국어의 안팎음씨끝 「아／어」, 「가／거／나」에 대하여, 영남
어문학 12집.
- 김홍수(1977) : 제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 5.
- _____ (1978) : 동시구문의 양상, 국어학, 7.
- 남기섭 · 이정민 · 이홍배(1982) : 언어학개론(탐출판사).
- 성광수(1975) : 존재사 ‘있다’에 대한 재고, 강복수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형설 출
판사).
- 성기철(1972) : 어미 ‘-고’와 ‘-어’에 대하여, 국어교육 18~20 합병호.
- 양인석(1972) :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2.
- 염선교(1986) : 국어 문장 의미의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 이기동(1978) :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논뢰 허용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과
학사).
- 이기갑(1981) : 15세기 국어의 상태 지속상과 그 변천, 한글. 173·174 어우름.
- 이승녕(1976) : 15세기 국어의 쌍형어 ‘있다／시다’의 발달에 대하여, 국어학, 4.
- 이현규(1981) : 국어 전용어의 사적 연구, 한국어문론집 1, 한사대 한국어문연구소,
- 임흥빈(1975) :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논문집(국민대) 8.
- 최명옥(1985) :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14.
- 최현태(1980) : 우리 말본(여덟 번째 고침), (정음사).
- 황병준(1982) : ‘있다’의 복합구문과 조동사 ‘있다’, 조규설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 Comrie, B. (1976) :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fe, W. (1970) :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oper, J.B. (1976) :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Inc.
- Lass, R. (1984) :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77) : Semantics Vol.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ews, P.H. (1974) :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g, Suk-Jin (1973) : A Geneative Study of Discourse in Korean.
On Connecting Sentences. Language Research 9—2.
- Yang, In-Seok (1978) : Pragmatics of Going-coming Compound Verbs in
Korea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
Hornbeam Press.